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회 긴급이사회와 정기이사회(제8회)가 지난 5월 21일(회의장소: 협회 중회의실)과 6월 11일(회의장소: 경기도 용인시 은화삼 C.C)에 각각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긴급이사회는 최근 건설기술자신고관리업무를 우리 협회가 수행하게 되는데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보고사항에 이은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들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회 긴급이사회

• 제1호의 안 : 건설기술자 신고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및 등록비, 수수료 징수액 결정 승인의 건

- 건설기술자 신고에 따른 등록비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기로 함.

1. 등록비 : 2만원
2. 수수료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500원/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10,000원/부

- 경력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수수료(5천원)는 징수하지 않기로 함

-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립금에서 차용 지출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기로 함

제8회 정기이사회

• 제1호의 안 : 건축사보조원 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 제2호의 안 : 96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하되, 10월 정기총회시 추인받기로 함

• 제3호의 안 : 회관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회관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연구 · 검토

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기로 하되,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4호의 안 : 대한상공회의소 특별회원 가입(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96 건설진흥추진대회 김창일 회원 등 정부포상

우리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등 13개 건설관련단체가 공동주최한 '96건설진흥추진대회가 지난 6월 20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700여명의 업계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건설인의 날'을 기념해 건설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전 건설인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수성 국무총리와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그리고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 최원석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장 및 건설관련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의 업계행사로는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되었다.

지난 81년, 6월 18일을 '건설의 날'로 제정해 제1회 행사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8회 대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전 건설인이 시공뿐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설계·감리 등 종합건설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건설업이 대외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기술과 품질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산업포장 수상자〉



김창일 회원



한규봉 회원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



유경철 회원



김석윤 회원

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기념행사에 이어 건설회관 1층 로비에서 건설산업현장 사진전시회가 열렸으며, 또 오후 3시 30분부터는 '21세기 건설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건설산업원이 주관한 세미나가 열리는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협회 김창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회원과 한규봉(천일건축엔지니어링 대표)회원이 산업포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석운(김석운건축사사무소 대표)회원이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백여명의 건설관련 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9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지난 6월 2일 시행된 1996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예정자가 발표되었다. 이번 건축사예비시험에는 총 9,102명이 응시, 이 가운데 520명이 합격해 예상보다 적은 6%미만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들 합격예정자들은 앞으로 해당경력에 대한 경력심사를 거쳐 통과자에 한해 오는 7월 15일에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올해의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세무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들은 7월 2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과 일간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천리안 매직콜 CUG 개설

우리 협회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주)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매직콜 CUG(Closed User Group : 폐쇄 사용자 그룹)를 개설하였다. 6월부터 개설된 CUG는 이용이 허락된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업무연락과 문서교류는 물론 정보 제공, 전자회의 등을 할 수 있는 PC통신 서비스의 하나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후 천리안 매직콜에 접속하여 "GO KIRA"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에 개설된 CUG에 가입하면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외에 (주)데이콤에

서 제공되는 천리안 매직콜의 모든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또 회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CUG에 업로드해 회원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지「천리안 매직콜 CUG 개설 이용안내」를 참조 바람. (129쪽 참조)

부산 건축사회, 원로회원 초청 만찬회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지난 5월 23일 부산시내 「석화」에서 원로회원들을 초청해 만찬회를 열었다.

5월 경로의 달을 맞아 건축계 발전에 공헌한 추대회원 및 은퇴 원로회원 13명을 초대한 이날 행사에서는 원로회원들의 공적을 기림과 아울러 주연을 벌여 노년의 소외감을 덜어주었다.

부산건축사회 대표단, 일본 오사카건축사회 방문



박성길 회장 추사 광경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박성길 회장의 11인의 일본방문 대표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건축사회를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다. 방문단은 방일기간중 오사카건축사회 총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내 건축물 및 시공현장을 견학하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양국 건축사회가 공동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특히 대표단 가운데 홍재석 감사를 비롯한 부산건축사회 청년건축사 일행은 양국 건축사회 청년대표들이 참석한 제4회 부산·오사카 청년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건축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고 두나라 건축사회간 긴밀한 유대관계와 활발한 교류를 위해 앞으로 청년건축사들이 앞장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건축사회, 회원친선 바둑대회 열어



바둑대회 광경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1층 세미나실에서 회원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틈틈히 쌓아온 바둑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회원간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바둑대회에는 총 39명의 회원이 선수로 참가, 1~2급 부문에 출전한 박상식(우전·예진·상진 건축) 회원 등 10명이 우승 및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경남건축사회, 회원친선 체육대회 개최



체육대회 개회식 광경

경남건축사회(회장 이동일)는 창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지난 6월 8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원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체육행사는 축구와 배구, 줄다리기 등 5개종목에 걸쳐 팀별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운동후에는 회원 노래 및 장기자랑 순서가 이어져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또 이날 체육행사에는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각계 귀빈들도 함께 자리해 창립기념일을 맞은 경남건축사회 회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한편 경남회원들은 체육행사가 끝

난 후 부실공사추방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6개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부산·경남건축작가회, '96 여름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부산, 경남지역 건축사들의 모임인 부산·경남건축작가회(회장:이광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부산시 수영구 황령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3회 「96여름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하늘마을과 건축모임」이라는 주제로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3, 4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워크숍 및 세미나에는 성인수(울산대 교수), 이봉춘(비전건축), 양덕봉(금상기획), 최승원(양가주망건축)씨 등이 팀별지도 건축가로 참여해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산복도르변 주거환경의 현주소를 학생들과 더불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최대 목탑 완공

국내 최대의 목탑 건축물 이충복 진천군 보탑사 내에 세워졌다. 지난 6월 9일 준공식을 가진 이 보탑사 목탑은



보탑사 목탑(사진:김대벽)

높이 43미터의 규모로 1층 금당에는 석가모니·비로자나불 등 4면불을 재현한 사방불법당, 2층에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관하는 대장전, 3층에는 미래를 안치하는 미륵전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탑은 삼선포교원의 주관하에 신영훈(문화재전문위원)씨가 책임을 맡아 고건축 전문가들의 고증과 자문을 받아 설계·시공된 것으로 대목 조희환씨와 지현건설이 참여했다. 이 탑은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방식인 결구방식, 즉 이음맞춤 등을 이용해 지은 것으로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대개의 다른 목탑들이 1층만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이 목탑은 계단을 통해 2,3층 전체를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간의 사용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고층목탑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 유적이 남아있으나 우리의 경우 갖가지 재난으로 모두 소실되고 전탑과 석탑만이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건축된 보탑사의 목탑은 건축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도 타다오 초청강연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씨가 지난 6월 15일 한국을 방문, 강연회를 갖고 그의 건축세계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계원예술조형학교가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서 안도 타다오는 「가능성을 찾아서」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그가 지향하는 건축의 철학을 밝히면서 “나는 건축작업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개념이나 미학을 의식해 본적은 없으나 일본인인만큼 그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 자신의 건축이 일본문화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프리즈카 건축상을 수상한 안도 타다오씨는 항상 화제를 낚는 작가로도 유명인데 그는 건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한 때 권투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년대 들어 완성한 산토리박물관과 치카츠야가 박물관은 그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대표작들로 자연과 역사와의 대화를 건축으로 승화시킨 작품들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도시건축연구소, 국제 설계 현상공모 실시

미국의 도시건축연구소인 USA Institute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라피디리움과 정원-줄리엣 묘지」를 주제로 한 박물관 및 공공 공간개발에 관한 국제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이 현상설계의 프로젝트는 옥외 비석·비명 등 박물관과 정원에 흠어져 있는 14~19세기 건축잔해들의 수용과 버려진 공공 공간을 살려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다. 응모자격은 각국의 건축전문인과 건축과 학생이며 신청접수 마감

은 오는 7월 15일, 작품마감은 10월 10일이다. 참가비는 1백50달러로 등록 및 접수에 대한 한국측 문의는 전화 053-814-8443~4, 02-543-4977로 하면 된다.

「아시아 플로 '96」개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제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이게 될 「아시아 플로(ASIA FLOR '96) - 아시아 태평양 바다재 전시회」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홍콩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 바다 장식재 업체인 인터페이스사를 비롯해 각국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의 02-765-1181~4.

건설분야 정보화 기술세미나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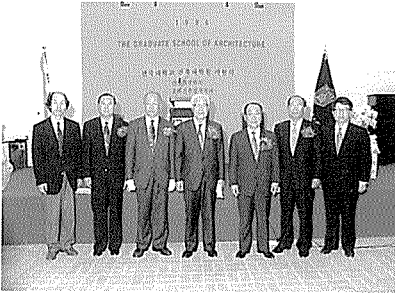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건설시장 개방과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3회 건설분야 정보화 기술세미나 및 시연」행사가 지난 6월 26일과 27일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정보처리학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정보처리기술사협회 송재형 회장의 「건설분야 정보화 방향」에 관한 초청강연과 분야별 세미나 그리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UG서비스, CAD/CAM 응용 등에 대한 시연이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각종 건설관련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이용사례 등에 대한 전시회가 열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제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건설기능인들이 건설현장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제4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6월 4일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대한건설협회 등 5개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거푸집, 미장, 건축목공, 건축배관 건축타일 등 10개 직종 22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동 경기대회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능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제고해 우수 기능인력을 배출시킴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거푸집 직종에 참가한 서상수씨 등 총 30명이 입상해 지난 6월 20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96건설진흥축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건국대 건축대학원 개원



전임·객원교수와 비평가가 Tutorial System으로 각 스튜디오별로 전담강의를 맡아 실제 현장업무에 가까운 실무중심의 전일제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국대 건축대학원(원장 주경재)이 지난 5월 15일 개원하였다. 건국대 건축대학원은 주경재, 이호진, 강병근, 안희영 교수를 운영위원으로 해 건축과 실내건축학부의 전임교수 13인과 윤승중(원도시건축), 김석철(아기반건축), 장해철(공간사랑, 티에스건축)씨가 등이 객원교수로 강의를 맡는다. 교과는 2,3년과정으로 나누어 실제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각 학과의 설계수업을 진행한다. 또 설계와 연관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무엇보다 전공선택으로 주어진 이론강좌의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점이 건국대 건축대학원의 또하나의 특징이다.

목조건축협회, 제2회 목조건축기술세미나 개최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고 미국임산물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목조건축기술세미나가 오는 7월 19일 오후2시부터 충남대 농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미국인 강사가 참여해 목조건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일 이날 세미나에서는 목조건축 학교 실습현장 견학이 있을 예정이며 제1회 목조건축학교 교재도 제공된다. 참가자격이나 인원 제한은 없으며 참가문의는 한국목조건축 협회(547-9437)로 하면된다.

건축가협회, 제8회 건축가 포럼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홍사단 강당에서 제6회 건축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종교건축과 작가의지의 문제'란 주제를 가지고 김 원(광장건축 대표)씨가 성공회 대성당의 경우를 예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상경(예전건축 대표)씨가 비평가로 참석하였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계획

인천시는 오는 2천년까지 1천 5백여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현재의 청사 운동장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연면적 6만 3천7백평)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청사 및 시의회 청사 확충 등으로 부족해진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인천시의 새 청사 건립 계획에 의하면 1~10층까지는 시청 사무실로 사용하고 11층은 의원회관, 12~14층은 교육청 사무실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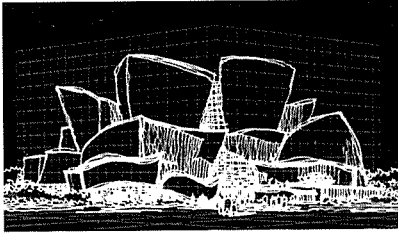
또 15~29층까지의 사무실은 임대용으로, 30층은 전망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오는 11월까지 기본설계를 현상공모한 후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97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국제 컨퍼런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에서는「틈새(Interstices)」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컨퍼런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다. 기조연설자인 마크 위클리, 베아트리지 콜로미나, 제니퍼 블루 등의 작품전시회도 함께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액서서리와 건축'이다. 장식적인 측면에서 건축의 액서서리는 이론으로 성립되는지, 또는 단순히 건축사의 작업 측면에 국한되는 것인지에 대한 접근으로 건축이론의 운명은 무엇인가에까지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현대건축에 관심있는 건축사로서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오클랜드 홈페이지(<http://archpropplan.auckland.ac.nz/accessory>)를 열어보면 된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결정

문화체육부는 최근 정부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통일한민족시대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전무한 상태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의 구체적인 연구 착수를 위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제안서를 공모,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의 제안을 정책시안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건축가협회의 제안을 토대로 연구책임을 맡은 서상우(국민대 건축학과)교수를 중심으로한 연구진이 11월까지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각종 환경문제와 자연보전이 시대적 이슈로 등장한 오늘날에 생태적 원리와 개념탐구로 국민 자연교육의 산실이 될 국립자연사박물관 신축계획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또하나의 민족자존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존 첸 & 윌리엄 쿠퍼 펴낸 「그리드를 이용한 투시도」

3차원 디자인과 프리젠테이션 도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한 책이 발간되었다. 도서출판 국제에서 발행된 「그리드를 이용한 투시도」는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완전한 발상과 도구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양자간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컴퓨터로 만들어 낸 건축투시도 그리드'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3차원 디자인을 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3차원 사고를 발전시키고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는 120여 가지의 각종 투시도 그리드와 300가지가 넘는 투시도 그리드가 AUTO CAD와 DXF 포맷으로 되어있는 DOS컴퓨터 디스크안에 담겨져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그리드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3차원적으로 디자인이나 프리젠테이션을 가시화해야 하는 일에 종사하는 건축사나 실내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B5 / 150쪽 / 10,000원)

— 「건축행정처리 요령」

이 책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기준에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검사까지의 처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기재요령, 건축공사장 관리, 건축공사 사고감리 및 품질시험, 위반건축물 및 건축사 행정조치, 건축허가 제한과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동주택 사업승인 요령과 도시설계, 건축설비업무 처리요령 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또 부록으로 건축공사 설계도서 사전검토 착안사항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실려있어 건축행정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출판 세일(385-7544) 발행.

제2회 ARCASIA 학생건축상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 회원국의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제2회 ARCASIA 학생건축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도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ARCASIA 학생건축상은 올해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함께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가 주관한다. 작품제출 마감일은 9월 16일까지이며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심사한 후 오는 9월 26일 수상작 3점을 발표한다. 수상작품은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기간중 전시회를 통해 각국에 소개되며 수상작 3점중 최고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여행 특전과 함께 신일본건축가협회로부터 ₩300,000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나머지 두 수상자에게는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가 기념품을 수여한다.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은 홍콩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통해 처음 제정된 이후 94년 마닐라 대회(제6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주관한 필리핀건축사협회에 의해 제1회 행사가 개최된 이래 ARCASIA 회원국 학생들간 건축에 대한 지식과 정보 공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작품주제 및 주제해석, 제출요령 등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기획부(581-5711~4)로 문의바람.

■ 작품주제 및 해석

- 테마 : "Urban Pocket"
- 테마해석 : "Urban Pocket"이란 도시환경 중에서 간과되거나 소외된 장소를 뜻한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부분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생겨난 곳들이다. 이러한 곳들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아직 상업적인 개발이 취약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음침한 뒷골목, 건축 개발의 부작용, 부적합한 코너와 축축한 슬럼가 등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표방하는 곳을 "Urban Pocket"이라고 한다.

"Urban Pocket"는 일종의 병으로써 지속적으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는 곳으로 관련기관은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자연적인 환경상태라고 파악해서는 안된다.

정책 결정자와 도시 계획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이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 과제 : 조직위원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사항을 증명하도록 요청한다. 따라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관계된 지역 내의 "Urban Pocket" 발견
2. "Urban Pocket"을 통한 지역적 Context 반영
3. "Urban Pocket"에 대한 긍정적인 건축적인 접근 증명 (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설명은 쓰지 않아도 된다.)

■ 작품 제출 요령

- 작품 : 참가자들은 A1(59.4cm×84.1cm) 크기의 종이 2장으로 참가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스케일과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 참가 작품의 레이아웃은 참가자들의 자유재량으로 하되 2-D 테크닉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언어는 영문표기이어야 함)

- 방법 : 제출 종이는 반드시 접이지 않아야 한다. 참가자의 이름과 주소는 각 종이의 뒷면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름과 주소는 앞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심사위원

- 아카시아 회장 : Haji Esa bin Haji Mohammed(PAM)
- 아카시아 학생건축상 : Budi A. Sukada(IAL)
- Kisho Kurokawa(일본)
- Syed Zaigham S. Jaffery(IAP)
- 필리핀건축사협회 대표(UAP), 추후 결정
- Adhi Moersid(인도네시아)

■ 작품제출 주소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ARCASIA 학생건축상 조직 위원회
The Jakarta Design Center Building,
6th floor
Gedung Jakarta Design Center, Lantai 6
Jl. Jenderal Gatot Subroto - Kaveling 53
Jakarta 10260
INDONESIA